



Raonatti 9th 태국팀

6월... 자원활동가 를 꿈꾸다.





목 차

1. **Raonatti**, 선생님이 되다.
(기획 - 실행 - 평가 - 고민)
-영어 수업, 한국어 수업

2. **Raonatti**, 스스로 고민하다.
(기획 - 실행 - 평가 - 고민)
-350ppm, 프레아띠, 분리수거

3. **Raonatti**, 태국에 살다.
-홈스테이, 문화 소개

4. **Raonatti**, 7월의 계획



อุทยานแห่งชาติแม่ยม

MAE YOM NATIONAL PARK

PHRANG THAI



Raonatti

선생님(크루)이 되다.

Raonatti, 선생님이 되다. (기획 - 실행 - 평가 - 고민)

Why??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활동들이 따로 있으셨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살린 활동참여, 한국어수업, 영어수업 보조, 벽화작업)

영어 수업

매일 2시간씩 참여
영어로 많이 대화하기

깃짜깁(C.A)

매주 월요일 특별활동 참여
각자의 특기를 살려서 참여
해달라.

한국어 수업

아침, 점심 조회 후
10분씩 짧은 단어나 문장

벽화작업

벽이 험한 지금의 영어교실
벽을 예쁘게 꾸며 달라.

Raonatti

선생님이 되다. (기획 -

실행

- 평가 - 고민)



영어 수업 보조

학생들이 외국사람을 만난 것이 처음인지라 영어를 많이 사용해달라고 요청하셨다. 우리가 직접 간단한 자기소개와 길 찾기 등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을 도와서, 주로 아이들과 conversation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선생님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을 도와드리며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orean Class: 아침 조회때는 빠지지 않고 했으나 점심 조회 때는 여러 일정을 진행하며 흐지부지 하며 많이 빼먹은 것 같다..

영어수업 보조: 그래도 학교에서 원하시는 부분인데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꾸준히 하루 2시간 정도 참여하며 선생님 보조하고, 상황에 따라 된다면 2번 참여도 고려해 보는 방향으로~

깃자감과 벽화작업 : 여러 일정 때문에 자연스레 기억 저편으로 잊혀진 것 같다.
깃자감은 담당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차주부터 참여하기로 결정.
벽화작업은 초안을 작성하고, 꾸준히 선생님과 상의해서 진행하며,
작업을 하는 방법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칩하는 것으로 결정.

Raonatti, 선생님이 되다. [기획 - 실행 - 평가 - **고민**]

고민거리???

학교에서 원해서 한 한국어 수업, 어느 순간 우리도 나태해지고 아이들도 흥미를 잃은 것 같다 ...어떻게 좋을까?

✓ 한국어 수업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은 아닐까? 아침마다 생각나는 주제로 가르친 것 같다. 준비가 부족했다.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 하되, 주말 수업을 열자, 집중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주말 수업을 열자.

그럼 동요를 컨셉으로 그에 맞춰서 가르치자

교육 방법을 개선 할 만한 방법은 없을까? 시간이 아침 조회에 10분 정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10분은 그대로 가되, 주말 노래 교실 설치하는건 어때?

기본 회화도 필요한 것 같다

시스템을 바꿔보는 건 어때?

주말 수업을 또 만드는 건 무리가 아닐까? 차라리 매일 시간을 늘리는게 좋을듯?

20일 정도 남았는데 방과 후 수업을 효율이 없다.

✓ 지금 있는 10분은 매주의 컨셉을 정해서 가르치자. 커리큘럼을 짜는 게 시급하다.

✓ 한국어 교실은 동요 3일 회화 2일로 오후 수업은 복습으로.

Raonatti, 스스로 고민하다.



Raonatti

스스로 고민하다. (

기획

- 실행 - 평가 - 고민)

Why??

태국에서 많이 받기만 한 우리...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을까??"

라는 중간평가를 준비하면서 시작한 고민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획한 몇 가지 계획들.

프레아띠, 350ppm, 분리수거

W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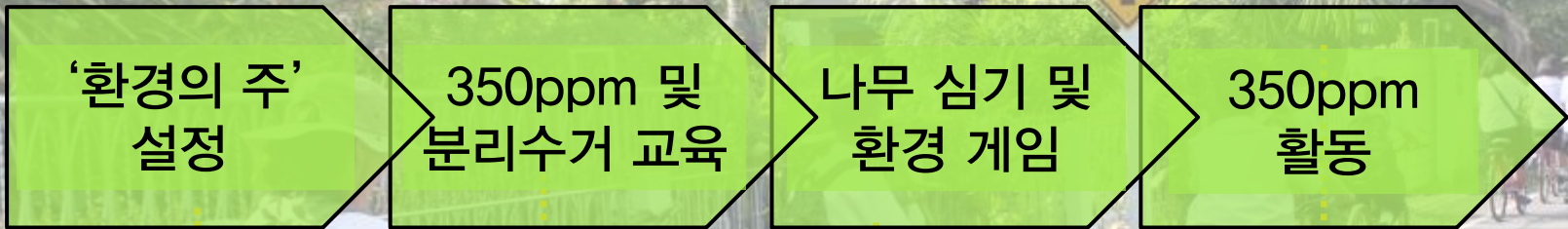
Why????



Raonatti, 스스로 고민하다. (기획 - 실행 - 평가 - 고민)

350PPM

Why?? 6월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전 라온아띠가 진행하는 350ppm 캠페인



선생님 및 학생들에게
우리 계획 설명

350ppm 수업 및
분리수거 통 비치

350ppm 활동으로
학생들과 함께 나무심기

부스 설치 및 지속 교육

향후 계획
350ppm 지속 교육 및
CO2를 줄이기 위한 액션 실천하기 교육과
꾸준한 확인활동



Raonatti

스스로 고민하다. (기획 - **실행** - 평가 - 고민)

환경교육 (350ppm)

선생님들과 상의 후, 각 학급마다 1시간씩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두 부분으로, 350캠페인에 대한 설명과 게임을 통해 한번 더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게임 - 지구 사랑기차(락싸로 룯파이), 350 (369응용게임), 분리수거 게임.

그러나 중간보고서와 기타 일정 때문에 몇몇 학급은 수업이 미뤄져 결국 차주에 수업을 하였습니다.



Raonatti

스스로

고민하다. (기획-

실행

- 평가 - 고민)



350PPM부스

환경주간 1주일 동안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1층 로비에 부스를 설치해놓고,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50ppm과 분리수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며 약속의 손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일정 변경과 학교사정으로 환경주간 동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초점을 더 맞춰서 환경부스를 어떻게 유지하고 유동적으로 바꿀지 고민입니다.

Raonatti

스스로 고민하다. (기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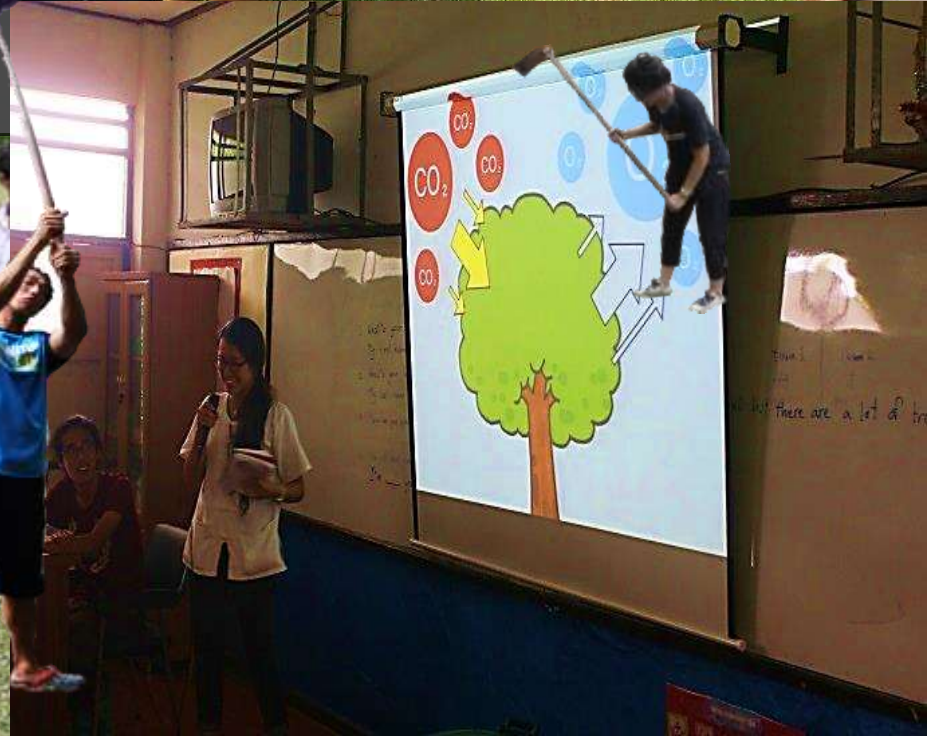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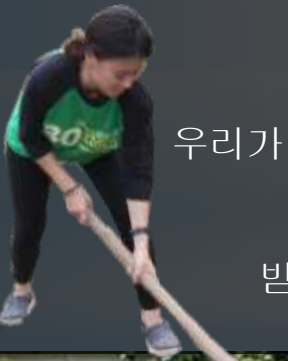
실행

- 평가 - 고민)

Planting Tree

350ppm 수업과 연결지어 액션활동으로 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도 준비되었고 학생들도 있었지만, 학교 내에 나무를 심을 공간도 부족하여, 하루 동안 마타욘6 학생들과 함께 나무 24그루만 심었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미흡하게 준비했다고 상기했다. 학교 상황도 잘 몰랐고, 얼마나 심을지도 잘 몰라서 나무를 받아오기만 했다. 의욕이 앞섰던 것 같다. 남은 나무를 어떻게, 언제 심을지 고민.



교육부분

은 잘 이루어진 것 같다. 학생들 전반적으로 350ppm과 지구 온난화의 개념 그리고 분리수거의 이유를 이해한 것 같아서 일정이 미뤄지긴 했으나 우리목표는 달성했다고 본다.

나무심기

는 학교사정 때문에 마타옴6만 하게 되었고 나무도 100그루 중 24그루만 심어서 고민이다.

환경부스

도 일정변경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 것 같다.

Raonatti

스스로 고민하다. [기획 - 실행 - 평가 - **고민**]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책임의식의 부재에서 나온 문제가
아닌가. 거기에 허술한 준비도 한 몫
을 한 것 같다.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도 제대로 이
루어 지지 않아서 일이 진행되어도
우리의사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고민거리???
350ppm 교육이
왜 잘 안된걸까??

막연히 쉽게 생각한 건 아닐까?
또 우리가 생각 치 못했던 갑작
스러운 일정 변경도 한 원인이라
고 생각된다.

논의 없이, 많은 고민 없이 환경의 주간
에 맞춰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행
해서. 학교의 상황이라던지 많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해
서 아닐까?

나무심기, 환경부스는 선생님들과 회의
라던지 우리끼리의 논의가 적어 기대이
하였으나 교육하려 했던 것은 아이들에
게 알리기도 했고 앞으로의 분리수거라
던지 등에 대한 것도 알릴 수 있어서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Raonatti, 스스로 고민하다. [기획 - 실행 - 평가 - 고민]

고민거리???
350ppm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띠 캠프 & 소풍

하루 날을 잡아서 환경 캠프를 열면
어떨까?? 여러 환경 교육도 하고 함
께 소풍도 가고~

무한 상기시켜주기!!!!

패널 설치라던가 영상 상영 등..짜투
리시간 활용하기

플레쉬몹을 해보자!!!

월수금 아침 액션 . 화목은 점심 액션 매
일 매일 액션을 통해 상기시키기!

환경 수업 2탄!!!

수업시간을 다시 받아서 수업을 하자!
피 프레에게 태국어 영상도 받았고,
환경 관련 영화를 볼 수도 있고~

환경 게시판을 만들자!!

판넬과 포스터 등을 붙이고,
지금 분리수거 상황도 사진 찍어
서 보여줄 수도 있고~

Raonatti

스스로 고민하다.

기획

- 실행 - 평가 - 고민

분리수거

Why?? 350ppm과 관련해 시작하기로 했으나 진지하게 해보자 마음먹고 기획. 선생님들의 조언을 쓰레기통이나 패널 등 준비

‘환경의 주’
설정

분리수거
교육

분리수거단
조직

분리수거
환경 정착

분리수거 통 비치
및
수시 확인

부스 설치 및 지속 교육

선생님 및 학생들에게
계획 설명

라온아띠와 함께
활동할 아이들 모집



Raonatti

스스로 고민하다. (기획 -

실행

- 평가 - 고민)



분리수거

환경주간 350ppm교육시간과 더불어서 분리수거의 이유와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교육 이후에는 간단한 분리수거 게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리수거의 의미도 복습하고, 직접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는 연습도 했습니다.

이후에 재활용회사 방문해서 추후의 활동에 대해서 고민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이어나갈 것인가? 분리수거의 필요성과 꾸준히 해야하는 이유?)



Raonatti

스스로 고민하다. [기획 -

실행

- 평가 - 고민]



분리수거

실상 분리수거를 하여도 정부에서 장려만 할 뿐 이를 수거하여 적극적으로 재활용하진 않는다. 선생님들과 함께 프래 시내에 있는 재활용회사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판매 가능한 물품들과, kg당 얼마에 구매하는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Can :Kg당 28B

Paper :Kg당 5B

Glass :Kg당 12B

Plastic :Kg당 3B



Raonatti

스스로 고민하다. (기획 - 실행 -

평가

- 고민)

전반적으로 아직은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지는 않다..

미흡하긴 하지만 아직 한번 교육을 했고,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 한번에 바뀌긴 힘들지 않나.. 그래서 아직 실망하기는 이른 것 같다.

조금씩 진행해 간다면 더 좋아질 것 같다.

일부는 하지만, 대수는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어야 하는 이유인 것 같다.

그래도 우리가 교육한 이후에 몇몇 아이들이라도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모습에서 힘을 얻는다.



Raonatti, 스스로 고민하다. (기획 - 실행 - **평가** - 고민)

교육을 진행하고 보니 우리가 아이들에게만 이야기를 전달했지 선생님들에게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자투리 시간에 아이들이 분리수거를 잊지 않도록 관심을 끌 수 있는 액션들을 해보는 건 어떨까??

고민거리???

분리수거 그리고 **지속 가능성**

분리수거단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좀 더 주축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분리수거단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ppt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자.

Cleft Lip & Palate 동아리 프레아띠 만들기

Why?? 치앙라이에서 CLP에 대한 활동을 프레와 엮어서 봉사단을 만들어보자는 계획
중간평가에서도 좋다는 평을 받아서, CLP활동과 프레 아이들을 엮기로 결정

동아리
참여학생
모집

동아리 소개 및
관련 포스터 부착

동아리
'프레아띠'
개설

CLP 소개
및 관련
교육

CLP소개 및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고민 공유

활동 및
액션

활동 : CLP fundraising
언제 : 1주일에 1번
장소 : Phrae Walking Streets

향후 계획

처음 모금액은 치앙라이 Y-CLP에 송금 후
Phrae에 있는 CLP관련 기관과 연계 나눔
혹은 Phrae 내의 병원과 연계.

프레아띠

3번의 사전 모임을
계획하고 미리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해
학교 여기저기
벽보를 부착함



하지만 논의 끝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Why??

팀원 개개인이 지쳐 있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다.
주어진 일정이 아닌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함에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져 있었기에 분리수거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Raonatti, 태국에 살다.

쁘라(Pla)의 이야기

Raonatti, 태국에 살다.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이곳 프레에 온지도 어느새 한 달이 넘어 두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처음 어머니와 동생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어색함은 사라졌지만 아직 가끔씩 느껴지는 가족과 나 사이의 거리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감에서도 순간순간 홈스테이 가족들에게서 정이나 따뜻함, 가족들이 나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 참 고맙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가족보다도 더 많이 나를 걱정해주고 그리워해주어서 찡할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도 못치고 어색하게 대하던 막내 여동생도 어느새 “피 뿌라~~” 외치며 다가와 안기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아버지와 장난도 치는 제 모습이 보여 한 달간 가족들에게 많은 것을 받았고 함께 했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주셔서 홈스테이 생활을 마치고 치앙마이로 돌아가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 사람들에게 준 것 보다 받은 것이 더 많아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많은 감정이 듭니다.

처음 홈스테이를 시작할 때는 2달이라는 시간이 참 길 것이라 생각했는데 치앙마이로 돌아갈 시간이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더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Doi)의 이야기

Raonatti, 태국에 살다.

태국에서 홈스테이를 한지 벌써 한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가정 속에 불쑥 들어가서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게 서로에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람빵에서의 5일 홈스테이 경험을 하면서도 서로간에 조심스레 행동을 했던 것 같아서
두 달간의 생활이 쉽진 않으리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달 반을 이 곳에서 살면서 전 참 편안하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없던 저에게 새로운 할아버지가 생기고, 새로운 남동생, 여동생이 생기고,
새로운 엄마, 아빠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가족의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P Doi~ 하면서 함께 놀러가자고 조르는 귀여운 동생들, 또 함께 놀러가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동생 생각도 자주 들곤 합니다. 또 사소하게 먹는 것도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생각해서 밥을 차려 주시는 모습이 한국 엄마와 똑같은 모습에서
그 속에 녹아있는 따뜻한 정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주는 이곳 가족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이들을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마음 한편에서 ‘그래.. 두달 있으면 가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았나.. 싶습니다.
동생들은 제가 운동을 가서 함께 놀러 못가는 일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울고 불고 할
큰 일이고, 함께 밥 먹으려고 한시간은 가쁘히 기다려 주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그리 많진 않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보단 좀 더 아이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고, 엄마, 아빠와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와는 조출한 술자리도 자주자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지금 이들과 함께한 이 순간이 후회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다 돌아가겠습니다.

남(Nam)의 이야기

Raonatti, 태국에 살다.

함께 하기

2007년 호주에서 한 달 간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숙소를 어찌할까 고민하다 결국 홈스테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호스트 가족과의 첫 만남, 무척이나 어색했지만 외국인과 함께 한 달 동안 산다는 경험에 무척 신났습니다. 설렘도 잠시, 밤 늦게 들어오고 일찍 집을 나가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 자신도 스스로도 “한 달만 있다가 떠날 사람인데” 라는 생각으로 호스트 패밀리와의 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호주 홈스테이 가족들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2013년 6월 태국에서 살고 있는 지금 호주와 마찬가지로 홈스테이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호주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일정이 바쁘더라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을 교훈 삼아 태국 가족들과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힘이 들긴 하지만, 서로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점점 더 정이 들고 있습니다. 같이 보낸 한 달이 지나고 이제 같이 지내는 날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가족이 되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남은 2주간도 작은 일부터 함께 하려고 합니다.

꿈(kung)의 이야기

Raonatti, 태국에 살다.

한 달을 보내며..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마냥 재밌고 좋기만 할 것 같던 기대했던 홈스테이. 생각치도 못한 일들과 상황들, 하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또 하나의 가족.

떨러야 떨 수 없는 내 동생 눈이. 새로운 동생이 생겨 마냥 예쁘고 귀엽기만 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살아온 환경도 문화도 방식도 다르기에 같이 지내는 처음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나 좀 그냥 내버려두지.. 시도 때도 없이 말을 붙이며, 가는 곳 마다 따라오는 눈이가 어느 날은 너무 미워서, 이 친구가 마냥 못되서 고집만 부리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눈이의 장난을 이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 나 뼈졌다! 하고는 먼저 입을 닫아버리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이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랬었는데.

내 맘대로 안되고, 내 뜻대로 안되면 고집부리고, 사촌언니가 너무 좋아서 졸졸 따라다녔던 내 어린 시절이. 내 모습이 떠오르는 순간, 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17살 친구에게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동생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너무 너무 부끄러웠죠.

그래서 다시 맘을 열고 다가가니.. 그냥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나를 많이 좋아해주는 예쁜 17살 동생이 있었어요.

나를 많이 아껴서, 걱정해서 그런 거였는데, 마음 좁은 나는 그것 하나 이해하지 못했었죠. 진짜 못난이는 바로 나.. 눈이를 보며, 눈이와 함께 하며 잊고 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또 눈이에게 너무 미안했던 1주일이었어요.

글을 쓰며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이 곳에서의 생활을, 어느 순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다 보니 소중함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중한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너무 고마우면서도 한번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언제나 편하게 지내라고 이야기 해주시는 할머니. 그리고 언제나 딸처럼 아껴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어머니.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시는 친구 같은 아버지. 진짜 내 막내 동생 같은 남동생 녹이.

낯선 이방인이 어느날 집에 찾아와 함께 살게 되어 많이 불편했을텐데도 진짜 가족처럼 편하게 대해주시고,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우리 가족. 태국에 새 가족과의 이별이 벌써 부터 두려워요.

특히나 고민이 많았던 이번 한 달, 가족들과 함께여서 많이 든든했어요.

남은 시간도.. 소중함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우리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뜨겁게 지내다 돌아가겠습니다..

Raonatti, 태국에 살다.



와이 크루 (스승의 날)

1년에 한번 있는 태국식 스승의 날 행사!!! 각 학급별로 선생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학생들이 직접 화환을 만들어 선생님들께 받치고,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날 하루는 윗사람에 대한 예절과 전통, 예법을 배우는데 저희도 함께 참여하여 예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Raonatti

태국에 살다.



장례식

우리 코디네이터인 P yo가 모친상을 당하셔서 람빵으로 가서 장례행사를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화려한 꽃들과 음악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입니다. 저녁에는 고인의 영혼과 육신을 위한 기도 및 애도의 춤이 진행됩니다. 식은 온 동네 분들이 모두 모여서 도와드리며, 불교문화에 따라 고인은 화장하고 납골은 절에 모신다고 합니다.

Raonatti 7월의 계획

분리수거 :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자.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를 도와줄 분리수거단을 조직

350ppm : 포스터, 게시판, 5분 캠페인 - 액션활동, 홍보물을 이용한 지속활동

한국어 수업 : 동요3일, 회화2일, 점심은 복습으로~

영어수업 : 현상태 유지,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벽화 : 선생님들과 토론 후 작업 실시.